

새벽 예불...저녁 독경...“철저한 불자”

신행현장

MBC불자회 장영효회장

야구 중계방송을 듣다보면 어떤 선수를 칭찬해 '공·수·주 삼박자를 갖췄다'는 해설가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공격, 수비, 주루플레이를 모두 잘한다는 뜻으로, 야구 뛰어난 야구선수임을 일컫는 것이다.

MBC 불교신행단체인 '불교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영효 거사(51·관리운영국 위원)는 '신행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불자다. 직장·사찰·개인 신행 생활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8일 오후 서울 강남 도곡동 역삼신사아파트. 일차휴가중인 장 거사는 이날도 어김없이 <금강경> 독경삼매에 빠져 있다. 편안한 생활한복 차림의 장 거사는 한 손에 염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전을 넘긴다. 이렇듯 장 거사의 일상은 불교로 시작하고 불교로 끝을 맺는다.

장 거사는 매일 새벽 3시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재직사찰인 봉은사엘 간다. 새벽예불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다.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벌써 6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빠진 날이래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2시간여의 예불과 기도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와 출근준비를 한다.

"처음엔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죠.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닦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서 안될 게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해서는 바빠 돌아가는 격무 속에서도 불교연구회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원들과의 교류는 물론 정기법회, 성지순례 등의

일정과 프로그램 등 각종 현안을 꼼꼼히 챙긴다.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96년 5월 불교연구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기에 어느 누구보다 불교회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대단하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시에 이사람 저사람을 찾아다니며 불교회를 만들자고 외치고 다녔던 것 자체가 장 거사의 깊은 불심을 그대로 말해준다.

장 거사는 웬만해서는 사람들과 저녁약속을 하지 않는다. 저녁시간은 <금강경> 독경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보통이다. 4년전인 97년 1월1일 저녁, 새해를 맞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금강경>을 손에 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끔은

내아들과 아들 호준이(포항공대 1년)도 함께 한다. "처음엔 그저 경전 한 번 읽어보려고 한 것뿐인데 매일 독경을 하다보니 그 깊은 이치에 점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아직 <금강경>의 깊은 이치를 깨치진 못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공부도 없을 겁니다."

93년부터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부모님과 함께 봉은사 일요법회에 참석하곤 했던 장 거사는 신도회 총무를 맡으면서 사찰과 신도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새벽예불을 권했던 아내는 물론 호준이도 봉은사 도반이자 신심깊은 불자다. 호준이는 지난해 포항공대를 수석으로 입학했다. 호준이는 '아버지의 정성이 있었기에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



◇독경삼매에 빠져 있는 장영효 거사. 장거사는 매일 30분 독경으로 하루를 정리한다.

었다"고 말한다.

장 거사는 지난해까지 모두 10여차례 이상 3천배 정진을 했다. 새벽기도를 나갔다가 우연히 한 도반이 3천배 정진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냈다. 1천배 정진은 몇 번을 했는지 기억조차 없을 정도다. 휴가나 휴일이면 사찰순례를 하거나 기도를 한다.

"어떤 서원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밝히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도 설날 전까지 3천배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장영효 거사에게 있어 삶은 곧 공부고 수행인 셈이다.

현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직장법회 이끌며 '더불어 신행' 실천 휴가맨 사찰순례

누가 참된 스승인가

생활속의 불교

눈이 먼 사람에게선 지팡이가 필요하고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선 목발이 필요하듯, 불법공부하는 사람에게선 참된 스승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

원효는 대인대사를 만났고 혜가는 달마대사를 만났다. 역대 조사들도, 큰 스님들도 다 눈앞은 스승을 만나 인도를 받았다. 이 흔탁한 세상에 중생의 심안을 밝혀줄 스승은 누구인가?

승보에 귀의한다 함은 스님들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다. 자·비·희·사의 구도정신,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정진력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다. 단지 식발염의한 모습이 남다르다 하여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다. 금강경은 분명히 '상'으로 여래를 볼 수 없

다고 가르친다. 임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어쩌자고 임제 스님은 이런 과격한 선언을 했을까?

이른바 임제 스님의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정신은 '자기 밖의 스승'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다. 타력에 매달리는 중생에 대한 경고이다. '너 자신' 밖의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설사 내 앞에 달마대사가 있다 해도 깨닫는 주체는 '나'이지 달마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이라도 나를 대신하여 깨달아 줄 수는 없다. 밖에 있는 것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만약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상 숭배자다.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인 것이다. 선지식은 지팡이요 목발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이정표'이다. 음식점의 메뉴판이요 땅의 대강을 보여 주는 지도(地圖)이다. 결코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혜가의 스승은 달마대사였지만 깨달은 이는 혜가였다.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켜 먹고 배부른 것은 혜가였지 달마가 아니었다. 무엇이 참 스승인 줄 알아야 비로소 올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마도, 대안도 스승 노릇을 할 수가 없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신비와 초월적 힘 이끌린 타력신앙은 불교아니다”

불법에는 나 자신이 무한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법은 부처님이 설하셨지만 부처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있는 법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할머니가 손자를 곁에 앉히고 옛날에 들었던 동화를 재밌고 이야기 쉽게 들려주듯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있는 법을 아셨을 뿐 한 법이라도 만들거나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아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바로 '중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있는 이 법을 알아서 할 수 있는 분이 깨달은 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에 의지하라. 그리



대효님 제주 원명선원 회주

이 곳을 떠나서 저 곳으로 갈 곳이 있다면, 이 곳과 저 곳을 가르는 것이나, 이 또한 불교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서방정도를 갈 곳이라고 한다면 불교가 아니며, 구하고 구할 대상으로서 불보살을 의지처로 삼는 것 역시 불교가 될 수 없습니다.

타력신앙을 강조하는 한 바른 불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불교에서 염불, 주력이 너무 타력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의지처로 삼는 내로라하는 스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감히 누가 나서서 거역하겠는가?"라는 이유로 무조건 염불만을 권하는 것이 불자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까요? 그러나 불법의 원리는 한 시대 스님들의 말에 있기보다 법에 근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을 갈라놓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지혜에 반하는 것이며, 이런 삼매는 바른 삼매가 되지 못하며, 사췌된 삼매는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집착에 빠져 있으면 욕망을 성취하려는 자극에 쉽게 넘어가 신비와 초월적인 힘에 매료되기 십상입니다. 지혜의 종자를 말할하니 자신을 어리석고 무력하며 보잘것없는 세상, 나와 일, 관념 등 모든 대상이 나눠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관 없으면, 나를 상대하는 대상인 객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세상은 갈라지려 해도 갈라질 수 없습니다. 나와 남, 나와 세상을 가르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실재가 아니며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은 물론이요 선도 버려야 악을 해결합니다. 증오(憎惡)와 사랑을 함께 버려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내속에 무한한 지혜 '법에 의지하라' 상기

고 법에 의지하라"고 설하셨습니다.

지혜가 넓어지면 번뇌는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면 지혜는 깊어져서 넓고 깊은 지혜는 맑고 밝아 사물을 바로 보게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로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대하는 대상인이 세상과 내가 하는 일은 나를 구속하지도 해탈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대상 즉 내가 상대하는 세상, 나와 일, 관념 등 모든 대상이 나눠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관 없으면, 나를 상대하는 대상인 객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세상은 갈라지려 해도 갈라질 수 없습니다. 나와 남, 나와 세상을 가르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실재가 아니며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은 물론이요 선도 버려야 악을 해결합니다. 증오(憎惡)와 사랑을 함께 버려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타력신앙의 풍토가 지배하는 오늘날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치인들 그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바라는 불교는 타력신앙이 아닙니다. 지혜의 종교인 불교가, 새해엔 더 이상 타력에 의존하는 신앙에 발목이 잡혀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1월 18일(목)

■조계사 관음기도 회향=조계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연담스님을 모시고 관음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2732-2115

■무량회 부처님 이운식=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는 오후 6시 올림픽회관에 있었던 법당을 올림픽 수영장으로 확장 이전하고 부처님 이운식을 봉행한다. 0119879-1494 이완배

■장기기증 캠페인=생명나눔실천회는 21일까지 제6회 설악나눔축제로서 장기기증과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02734-8052

1월 19일(금)

■종단협 신년하례법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오후 3시 서울 부암동 하림사에서 '국운변창 및 국민화합을 위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26개 종단협 소속 종단 총무원장과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다. 02732-4885

■진각치매대기보호센터 개원식=진각종 진각복지회는 1시 30분 진각치매대기보호센터 개원식을 거행한다. 02914-8556

■불교의상 제안전=불교의상디자인연구원은 오후 2시 30분 불교방송 3층에서 제1회 한국 불교의상 제안전을 연다. 이날 육법공양법복, 신행활동복 등이 발표된다. 02756-7516

■좋은벗들 통일강좌=좋은벗들은 오후 7시 30분 정동회관 3층 강당에서 이종훈 국회연구관을 초청해 '가래이스키 고려인 재러포프'를 주제로 통일강좌를 개최한다. 02587-8996

1월 20일(토)

■동화사 철야용맹정진=대구 동화사는 오후 9시에서 21일 새벽 3시30분까지 설법전에서 철야용맹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53982-0101

1월 21일(일)

■강남포교원 달마어록 강설법회=강남포교원은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원장 성열스님을 강사로 달마어록 강설법회를 봉행한다. 02539-2631

1월 22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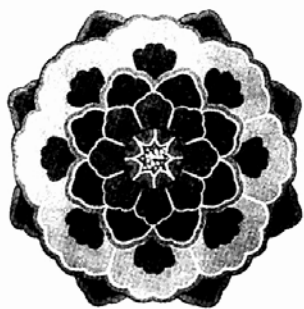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아함경 강독법회=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는 정오 병원내 법당에서 명성여교 이학주 교법사를 모시고 아함경 강독법회를 봉행한다. 022204-0115

1월 23일(화)

■봉은사 마륜천일기도 200일 회향법회=봉은사는 오전 10시 마륜전에서 마륜천일기도 200일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2547-4255

2001 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 바랍니다.



동방불교대학

(우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02)763-0229, 763-8536

1. 모집 내용

-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 나. 법 패 과 : 00명
- 다. 불교미술과 : 00명

2. 응시 자격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가. 신입생
 -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 나.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 1) 정규대학 졸업자
 -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3. 전형 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4.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1년 1월 15일(月) - 2월 17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 : 2001년 2월 18일(日) 10:00 - 17:00

6.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8. 참고사항

-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신)를 품수케 함.
-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9. 기타

-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여 됨.
-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 다. 태고종단 각 교구총무원 라. 경서원(☎733-3346)